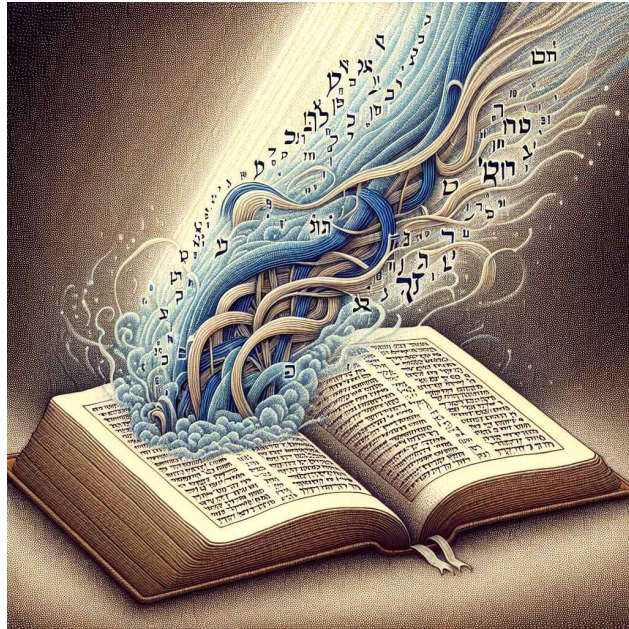


종교개혁주일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셀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는 단순히 받은 재능이나 자산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며,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지를 묻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를 '시간'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하고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았는지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문제는 그가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주인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주인의 뜻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귀한 곳에 심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사랑의 시간, 배움의 시간, 섬김의 시간, 쉼의 시간 등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한 결과를 내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맡겨진 일에 참여하고, 작은 것이라도 충성스럽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진심어린 대화, 작은 배움과 선행, 그리고 쉼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가꾸는 일입니다. 이런 작은 충성이 쌓여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자라도 남기도록 의미 있게 써볼 생각은 있느냐?” 주어진 하루를 허비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채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는 지혜로운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 우리의 작은 충성이 기쁨의 열매로 드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를 주께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	다	같	이			
경배찬송	----- 1장	-----	다	같	이		
성서교독	----- 60번 시139편	-----	다	같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찬 송	----- 38 장	-----	다	같	이		
기 도	-----	1부	노	응	상	집	사
		2부	태	영	성	집	사
성경봉독	----- 히브리서9:11-12	-----	인	도	자		
찬 양	----- 주님이 일하십니다.	-----	성	가	대		
설 교	----- 피로 이루신 의	-----	박	근	상	목	사
기 도	-----	인	도	자			
찬 송	----- 252장	-----	다	같	이		
헌금봉헌	----- 헌금함에	-----	다	같	이		
헌금기도	-----	인	도	자			
광 고	-----	인	도	자			
찬 송	----- 기쁨으로 찬양	-----	다	같	이		
축복기도	-----	박	근	상	목	사	

■ 금주의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9:11. 12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최금숙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에베소서교회론(71) 6:15-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7)
찬송/ 399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 교회소식 ■■

- 이번 주는 스가랴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7)
- 주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7)’
-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비밀’** 독후감을 받습니다.(사무실)
10월 26일 주일까지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꽃이
이번주	1층 김실근 김장옥 2층 최정선 김춘자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노응상 태영성	유상수 황순화/결혼감사
다음주	1층 이길연 이흥용 2층 김현주 김춘자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윤태영 박현규	문서준/생일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10,31) 4구역(손영문)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11,07) 5구역(박종례)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롬 5장 1절 제 목 -가장 좋은 친구	활동 1.10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2.오늘의 활동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성령님입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송춘자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롬 8장 26절 제 목 -가장 좋은 친구	1.10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2.다음주 기도는 송치선 선생님입니다. 3.세소식반 놀러 오세요. 토요일 오후 3시 4층 유아부실 4.오늘 활동은 돌이 한몸처럼입니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사회자 -백가는 자매 기도자 -김다연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출애굽기 7장 14~25 제 목 -10가지 재앙(1) - 피재앙	1.11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8장15절입니다. 2.11월 2일(주일)은 월초기도회로 섬깁니다. 3.11월 9일(주일)은 친구초청 예배입니다. 4.11월 13일(목)은 수능일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5.11월 16일(주일)은 추수감사절 온세대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김채정 자매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이사야 9:1~7 제 목 -어둠을 뚫고 오신 평강의 왕	1.11/1(토) 11시 청년부 기도회입니다.(5층 뽕엘룸) 2.11/2(주) 대표기도는 박주원형제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기독교는 죄 문제를 왜 중요하게 다루나요?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죄가 뭐가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나요?” “죄”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특정한 나쁜 행동을 떠올립니다. 거짓말, 배신, 폭력, 도둑질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은 분명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핵심은 행동 목록보다 더 뿌리가 깊습니다. 죄는 행동 이전에 이미 안에서 일어난 “중심의 어긋남”입니다. 사람이 원래 사랑과 진실, 선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과녁을 벗어난 화살처럼 어느 순간부터 삶의 중심이 무저졌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바퀴 정렬이 조금만 틀어져도 운전대를 놓는 순간 차가 한쪽으로 쏠립니다. 핸들을 억지로 바로 잡아도 타이어가 빨리 닳고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줄줄이 생기는 소소한 사고들은 사실 정렬이 어긋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 행동을 고쳐도 중심이 어긋나 있으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기독교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죄인”은 도덕 점수로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모두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나 “나 중심”의 렌즈로 세상을 보기 쉽고, 내 기준이 자연스럽게 최우선이 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 또한 자기 기준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가정, 직장, 사회, 온라인 공간에서 수많은 “중심”들이 부딪히고 갈등이 커집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내가 옳다” “내가 먼저”에서 출발합니다. 사실 인간은 모두 마음으로는 선을 원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정직하고, 더 관대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방향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체면 때문에 멈추고, 두려움에 숨고, 이익 앞에서 흔들립니다. “원하는 나”와 “실제의 나” 사이의 간격이 보편적인 간격이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증거처럼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남보다 덜 나쁘면 괜찮다”라는 비교 대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을 봅니다. 나침반이 북을 제대로 가리키지 못하면, 걷는 속도가 빨라져도 결국 길을 잃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중심에서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죄가 큰 문제인 이유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계산하게 만들고, 진실해야 할 순간에 숨게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갑니다. “왜 또 이렇게 됐지...” 후회하면서도 반복되는 이유가 단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인간의 속에 있는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둘째, 내면을 분열시킵니다. 겉의 나와 속의 내가 갈등을 하고 인정받고 싶어 과하게 애쓰거나, 다치기 싫어 감정을 달아버리고 삽니다. 스스로를 포장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중요한 순간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인

간의 소망을 값어칩니다. “사람은 안 변해”, “세상은 원래 그래” 같은 체념이 자리 잡으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굳은 마음에는 사랑과 믿음이 사라지고 점점 고립됩니다. 고립은 다시 상처를 만들고, 상처는 포기하고 살게 만듭니다. 넷째, 영적 방향 감각이 흐려집니다. 죄는 인간을 두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스스로 변명하며 살고 혹은 “나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절망합니다. 이런 상태가 길어질수록 기쁨은 점점 사라지고 평안은 요동을 치고 삶의 의미가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자기관리나 마음챙김, 습관교정, 심리상담 같은 도구들은 유익합니다. 기독교도 그런 도움을 인정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 단절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중심이 어긋나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밖에서 오는 도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속에서 끌어 내는 의지가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오신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

예수님은 그냥 “삶의 지혜를 가르친 좋은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돌아갈 길” 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을 먼저 건너 오셔서 우리를 데려오셨다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인간 회복의 초대입니다. “괜찮아”라는 얇은 위로가 아니라, “내가 감추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안다. 도망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실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맞네”라고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심 자리를 바꾸는 고백입니다. “제가 모든 걸 통제하려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숨지 않고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처, 실패, 수치를 감추지 않고 내어놓고 “저는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할수록 더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신뢰가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질수록 삶이 변하게 됩니다. 속도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이제 절대 실수하지 않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도 두려움과 수치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아올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유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방어와 변명이 줄고, 더 정직해집니다. 이 정직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줍니다.

그럼 교회는 왜 필요한가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을 경험하는 곳이며 서로의 연약함을 안전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납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실망하셨다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병원이 완벽하지 않다고 치료의 필요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찾으신다면 이런 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나누고, 어떤 질문이든지 환영하는 곳이면 좋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귀하게 듣는 곳이라면 더 좋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찾아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멀리 가기 어렵습니다. 함께 가면 넘어져도 잡아줄 손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죄를 중요하게 다루는지 다시 정리해 봅니다. 죄를 말하는 이유는 사람을 몰아세우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진짜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제대로 치료받듯 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너 잘못했어”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여기 아프구나. 함께 고치자”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희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 실패, 수치, 단절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도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이 지금 상황에 있는지 마지막은 아닙니다.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을 잃었으니 지금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저의 중심에 오셔서 저를 바로 세워주세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가까운 지역에 교회에 가서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모임에 들어오셔서 그들을 만나 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 보세요. 잘 안내하여 줄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의심도 괜찮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궁금한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안내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있는 질문이 인생에 매우 중요한 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나눔식 소그룹 스가랴 14:1~8(10월 29일 본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 찬양하기 * 환난과 핍박 중에도(새 336)

Focus :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성도를 대신해 원수와 싸우시고, 성도에 최종 승리를 주십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스가랴 14:1~8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1~8장에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성전 재건과 영적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여전히 함께하신다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9~14장에서는 메시아의 등장,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의 구원 등 종말론적 주제를 다룹니다. 특히 스가랴서 후반부는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를 넘어 온 세상에 완전하게 이뤄지는 '여호와의 날'을 묘사합니다. 그날은 하나님 백성이 연단 과정을 거쳐 거룩해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소망의 날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약속하신 최종 승리를 주시는 날입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울 때(1~2절),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3절)

적용과 나눔 성도를 위해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이 내게 이뤄진 때,
또는 이뤄지길 내가 소원하는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2. **관찰과 묵상** 그날(여호와의 날)이 도래할 때 하늘과 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6~8절)

적용과 나눔 세상에서 나는 무엇에 욕심을 부리는지, 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 성도를 대신해 싸우시며 모든 악과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성도의 승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통은 잠시일 뿐이며,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땅에 속한 것들은 안개처럼 모두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력과 재물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약속은 성도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이자,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공격을 당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분별하고 추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시대가 급속도로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 알바니아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졌으나, 복음 전파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지혜와 지혜완 열매를 주시길 기도합니다(177쪽 '땅끝에서 온 편지' 참조)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 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Diane Ball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뤄지리
 기다려 - 하루 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 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시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